

제 ① 교시

국 어

수험번호 ( )

성 명 ( )

※ 다음 물음에 대한 가장 옳은 답을 하나만 골라 정확히 표기하시오.

1. 국어사전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낱말은?

- ① 돌고래    ② 강아지    ③ 올빼미    ④ 종달새

[2~3]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(가) 바람은 흐르르 휘파람 불며  
담을 넘어 저만큼  
미루나무 꼭대기에  
앉아 있다.

(나) 마루에 앉아 있는데 ㉠바람이 아주 시원하게 불었다.  
바람은 흐르르 소리를 내며 종이를 날리고 엄마가 개어  
놓은 빨래도 흩뜨려 놓았다.

2. (가)와 (나)의 공통된 글감은?

- ① 바람    ② 빨래    ③ 마루    ④ 엄마

3. 밑줄 친 ㉠ 문장의 서술어는?

- ① 바람이    ② 아주    ③ 시원하게    ④ 불었다

4. 다음 상황에 어울리는 사과어는?

책상에 있는 친구의 연필을 실수로 떨어뜨렸을 때

- ① “어머, 웬일이니?”  
② “이 연필 누구 거니?”  
③ “미안해. 조심하지 않아 연필을 떨어뜨렸어.”  
④ “네가 연필을 잘못 두어서 다니는 데 불편하잖아.”

5. 다음 상황에 어울리는 속담은?



- ① 아는 것이 힘이다.  
②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  
③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.  
④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.

6. 다음 문장의 종류는?

창문을 닫아라.

- ① 묻는 문장    ② 시키는 문장  
③ 풀이하는 문장    ④ 감탄을 나타내는 문장

7.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말은?

- 우리말에 본디부터 있던 말, 순 우리말, 토박이말  
○ 예: 아버지, 하늘, 땅, 아름답다 등

- ① 고유어    ② 외래어  
③ 한자어    ④ 외국어

[8~9]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땅뺏기를 하다가  
쳐다본 하늘.  
파란색 도화지 한 장.  
금그을 수 없는  
하늘 속으로  
야아  
선생님 찬 공이  
쏙 들어간다.  
아이들도  
선생님도  
뛰어들어가는  
푸른 하늘.

- 전원범, 「푸른 하늘 속으로」 -

8. 위와 같은 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?

- ① 연극을 하기 위해 쓴 글  
② 주장하기 위해 근거를 들어 쓴 글  
③ 운율을 살려 생각이나 느낌을 함축적으로 쓴 글  
④ 새로운 내용을 알려 주기 위해 자세히 설명하여 쓴 글

9. 위의 글에서 ‘하늘’을 무엇에 비유했나?

- ① 파란색 도화지    ② 운동장  
③ 아이들    ④ 선생님

10.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말하기 방식은?

어떤 문제에 대하여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가장 적절한 해결 방안을 찾는 방법

- ① 강의    ② 토의    ③ 연설    ④ 축하

[11~12]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개미귀신은 작은 머리통에 사슴벌레의 집게처럼 생긴 단단하고 날카로운 턱이 나와 있다. 몸통에 있는 여섯 개의 다리로는 모래밭을 빠르게 파고 들어갈 수 있다. 그래서 마치 긴 창으로 무장을 하고 튼튼한 군화를 신은 용감한 군인처럼 보인다. 또 온몸이 털로 덮여 있고, 몸의 색깔이 황갈색이어서 모래에 숨으면 잘 보이지 않는다.

11. 위 글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?

- ① 개미귀신의 턱이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개미귀신의 이름  
③ 개미귀신의 모습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④ 개미귀신이 사는 곳

12. 다음에서 의견을 표현한 것은?

- ① 온몸이 털로 덮여 있다.  
② 몸의 색깔이 황갈색이다.  
③ 몸통에는 여섯 개의 다리가 있다.  
④ 군화를 신은 용감한 군인처럼 보인다.

[13~14]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어린이가 당하기 쉬운 교통사고 유형을 살펴보면 ㉠ 사고의 70퍼센트 정도는 보행을 하는 도중에 발생한다. 위험한 놀이를 하거나 자전거나 차를 탈 때 안전에 유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㉡ 발생한다. 그러므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서는, 어린이 교통사고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, 어린이도 평소에 조심하도록 주의해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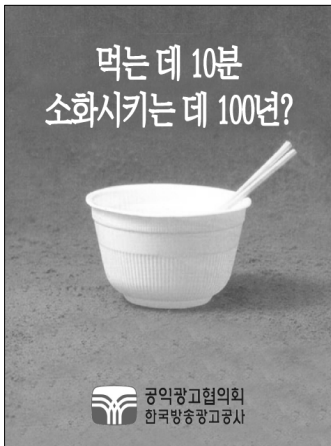
13. 밑줄 친 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?

- ① 차도를 무단으로 횡단하지 않는다.  
② 차가 다니는 골목길에서 장난하며 걷지 않는다.  
③ 횡단보도에서 녹색 신호가 켜지면 재빨리 뛰어간다.  
④ 밤길을 다닐 때에는 가능하면 밝은 색 옷을 입는다.

14. 밑줄 친 ㉡과 바꾸어 쓸 수 있는 말은?

- ① 연결한다    ② 준비한다    ③ 통과한다    ④ 일어난다

15. 광고에서 전하려는 내용은?



- ① 가공 식품은 건강을 해친다.  
② 일회용품 사용이 환경파괴의 원인이다.  
③ 산에는 간편한 음식을 가지고 가야 한다.  
④ 하루 세 끼의 식사를 규칙적으로 해야 한다.

[16~17]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㉠ 이튿날 새벽, 서울에 도착한 아저씨께서는 날이 밝기를 기다리셨습니다. 처음으로 꿀 장사를 나온 아저씨께서는 어디서, 어떻게 꿀을 팔아야 할지 몰랐습니다. 어쩌다 용기를 내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꿀을 사라고 말하여 보았지만, 사람들은 ㉡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지나쳤습니다.

16. 밑줄 친 ㉠과 같은 뜻의 낱말은?

- ① 어제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오늘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③ 다음날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④ 요즈음

17. 밑줄 친 ㉡과 같은 방법으로 말소리가 바뀌어 발음되지 않는 것은?

- ① 국물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숨결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③ 등불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④ 손등

[18~20]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장끼는 제 눈을 의심하고 놀란 가슴을 진정하며 “여보, 까투리. 저것을 봐요. 저기 맛있는 쿡이 있질 않소? 어화, 그 쿡, 소담도 하다. 하늘이 주신 복이로세.”  
까투리는 그 말을 듣고 달려가, 그 쿡과 주위를 자세히 살펴보다가 머리를 갸우뚱하며  
“여보, 장끼. 아무래도 이상하군요. 그 쿡을 먹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. 그 쿡 주위는 분명히 입으로 훌훌 불고, 비로 싹싹 쓸었으며, 일부러 던져 놓은 자취가 엿보여요. 분명히 이것은 사람의 손이 닿아 있는 것 같아요.”  
장끼는 천만 뜻밖이라는 듯이 고개를 좌우로 저으며 “참 미련한 말. 지금이 어느 텐데 이 추위 속, 깊은 골짜기에 길조차 막혔거늘 사람이 무슨 수로 이 산밭까지 온단 말이요? 이는 필시 지난 추수 때 사람이 흘린 쿡이 분명하오.”

18. 위 글의 공간적 배경은?

- ① 산밭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추수 때  
③ 추운 겨울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④ 집 앞 마당

19. 까투리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근거가 아닌 것은?

- ① 쿡 주위를 비로 싹싹 쓸었다.  
② 길이 막혀 사람이 오지 않는다.  
③ 쿡 주위를 입으로 훌훌 불었다.  
④ 일부러 던져 놓은 자취가 엿보인다.

20. 장끼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?

- ①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다.  
② 자비롭고 양보를 잘한다.  
③ 마음이 여리고 동정심이 많다.  
④ 남의 말을 잘 듣지 않고 고집이 세다.